

크스님·석학들의 가르침서 얻는 지혜

소설로 읽는 무학대사의 일생과 수행

새로나온 책

화제의 책

물속의 물고기가...

법산스님 역음

무학대사

노경식 지음

화제의 책



“물 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웃는다. 진리는 바로 그대 안에 있다. 그대 자신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숲에서 저 숲으로 실 새 없이 헤매고 있다. 여기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진리를 보라...”

얼렸던 ‘고승초창법회’에서 법문했던 관음 복원 원담 서암 월운 법정 청화 도문 스님 등 스물일곱 크스님의 법문과 고경근박사, 고은 시인, 송석구 동국대 총장 등의 강의를 정리해 담았다.

고려말기 사회적 모순과 불교의 폐단을 개혁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몸소 실천했던 무학대사(1384~1405). 향경도 안변 설봉산 토굴에서 참선수행하던 중 이상계와의 운명적 만남, 중생 구제와 나라의 안녕을 위한 고고의 노력, 그리고 새나라가 건설되고 난 후 명예와 공리를 헌신짝 버리고 떨치고 산승생활로 돌아간 무학대사의 인생역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BBS의 ‘고승열전’ 시리즈를 쓴 작가 노경식씨가 소설로 재구성한 <무학대사>(상·하권)는 수행자로서의 초월적 존재로서의 면모와 아름답고 순수하며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스님의 모습을 그렸다.



▲생활 속의 법회=신심을 키우고 신행 생활을 점검하는 정기 법회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 법회의 의미와 사성제, 팔정도 등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예절, 불자의 생활윤리, 생활 속의 수행, 가정 예절과 기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불교의 생활화를 위해 가정법회의 요령과 의식문을 함께 실었다. 도서출판 이바지 편집부가 엮었다. <이바지, 3천5백원>

최봉수씨 '마하박가' 완역 각주·해제 달아 이해 쉽게

국내 첫 팔리어 율장 번역

‘마하박가(Mahāvagga)’는 팔리어로 된 삼장의 뜻인 현들 중에서 목장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전은 법어(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것이 중국으로 건너와 한역된 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나라에도 팔리어 원전번역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다. 오역이 적고 부처님 당시의 원음을 그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있는 남방불교가 원초적인 불교형태를 가장 순수하게 유지해 오고 있고, 팔리어 경전이 현존하는 여러 불교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불교연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우리나라에도 팔리어 원전번역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다. 오역이 적고 부처님 당시의 원음을 그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을 했는데 부처님이 이를 보고 그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또는 꼭 필요한 일이므로 ‘하지마라’ ‘해도 좋다’는 식의 판단을 내리는 형식을 띠고 있다.

장요가 아니라 때와 장소에 맞는 상황 철학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번역된 <마하박가>는 이런 가르침들마다 제목과 번호를 붙여 놓았고 어렵거나 꼭 알아야 할 용어마다 각주를 달아 이해를 돕고 있다. 또 권앞에 해제를 달고 각 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놓아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따라가도록 했다. 여유있고 깔끔한 편집도 ‘율장’이라는 딱딱한 느낌을 녹이기에 충분하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장가 안 가길 잘했네> <저거는 맨날 고기 육교>의 저자 무학스님(대구 관음사 주지)이 법구경에서 1백30여개의 문장을 뽑아 재구성한 책. 원뜻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현대대각에 맞는 어휘와 표현을 사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70여쪽에다 한 손에 잡히는 변형판이라서 어디서라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좋은인연, 2천원>

'지혜가 하나씩 30가지 꾀 이야기' "대장경속에 동화 있네"

"연기법으로 본 일상을 詩로"

산골마을 마음씨 착한 농부집에 사는 쥐가 마루 밑에서 금화궤짝을 찾았다. 몹시 가난했던 농부에게 쥐는 금화를 하루에 한개씩 물어다주자, 농부는 그 돈으로 음식을 사서 쥐와 반씩 나누어 먹었다. 그런데 쥐가 음식을 매일 고양이들에게 빼앗기자 이를 안 농부가 유리구슬을 만들어 주었다. 고양이들은 유리구슬 속에 숨은 쥐를 깨물려다 이빨이 부러져 도망가고 농부와 쥐는 행복하게 살았다. <금화를 물어다 주는 쥐>

“배란대에 놓인 봉숭아꽃을 바라보세요. 그 꽃이 왜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들은 지금 우리 앞에 무수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성철’의 주인공을 맡아 관심의 초점이 된 시인 장석남 씨(33)가 자신의 두번째 시집 <젓은 눈>(솔출판사)을 내놓았다.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선어록들을 읽은 그가 일상적 소재를 산문적 어법으로 다루면서 연기법을 물리치고 있음은 어쩌면 당연하다.



영어출판 TEL: 273-4451-2 FAX: 273-4450. THE. THIS. A THOUSAND TIMES THIS.

이것이! 이것이! 오소 리즈너의 경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이것이! 이것이! 오소 리즈너의 경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살아있는 선

말없는 자의 말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소 리즈너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인간 종교 철학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글과 함께 그의 생애의 일종의 순전을 담고 있다. 오소 리즈너 경의 / 황광우 옮김 / 값 4,800원

42장경 인류 최고의 사상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권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소 리즈너는 특유의 페이스 넘치는 우회법 곁들여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읽기 쉽게 심화하고 있다. 오소 리즈너 경의 / 이경옥 옮김 / 장영 / 각권 값 7,500원

중국의 작은 부처 양산 위신의 법제자로 미조신사의 많은 선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법원을 만나 해종국사의 원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번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오소 위신에게 머물면서 진리법 깨친 그는 중국의 소승으로 불림 인공 출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의가장 조종주의 하나인 위종종(제9종의) 문종이었다. 오소 리즈너 경의 / 김희영 옮김 / 값 6,500원

귀신의 법제자로 미조신사의 많은 선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법원을 만나 해종국사의 원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번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오소 위신에게 머물면서 진리법 깨친 그는 중국의 소승으로 불림 인공 출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의가장 조종주의 하나인 위종종(제9종의) 문종이었다. 오소 리즈너 경의 / 김희영 옮김 / 값 6,500원